

인도: 박현수 목사

*예배로의 부름 ----- 인도자

*신앙고백 ----- 다같이

사도신경

*찬양 ----- 다같이

- 죄짐 맡은 우리 구주 (찬369)
- 주만 바라볼지라

참회의 기도 ----- 다같이

이사야 53:6

봉헌 ----- 다같이

내가 무엇을 가지고

기도 ----- 김태중 장로

성경봉독 ----- 인도자

로마서 8:31-39

특별찬양 ----- 찬양대

힘한 십자가 능력 있네

설교 ----- 박현수 목사

“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!”

*찬양 ----- 다같이

그 사랑

*결단의 기도 ----- 다같이

*축도 ----- 박현수 목사

*표는 일어서서

현금은 입구 현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

(Zelle 온라인현금: highland.giving@gmail.com)

P C A 하이랜드교회

한인중부노회

Highland Presbyterian Church

담임목사 박현수 (Rev. Jason Hyunsoo Park, Pastor)

820 S. Milwaukee Ave. Vernon Hills, IL 60061 ☎(847) 634-6033

www.highlandchurch.com (web) highlandchurch1977@gmail.com (교회)

parkhyunsoo@hotmail.com (담임목사) hellofromhighland@emweb.com (EM Web)

◀ 마음을 나누십시오! ▶

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로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위로보다는 더욱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. 3위는 ‘걱정마세요. 시간이 해결해줄 것입니다.’ 2위는 ‘너무 예민하게 생각 말고 편하게 생각하세요.’ 그리고 1위는 ‘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요’ 라고 합니다. 혹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반대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‘이야기하고 싶을 때 말해요. 언제든지 들어드릴게요’ 라고 합니다. 이는 곧 ‘조건 없는 지지’와 ‘응원보다는 공감’이 진짜 위로가 된다는 것의 증명이라고 합니다.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 때 누군가의 이런 말이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; ‘지나가다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.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해요.’ 그러면서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, 평상시처럼 대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말을 더했습니다. 다시 말하면 평소에 관심이 없던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평소에 교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, 그래서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. 누군가의 위로가 되십니까? 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? 그렇다면 마음을 나누십시오! -박목-

◀ 광고 ▶

- 구역예배안내: 1구역(7/26, 12:45pm 교회), 2구역(7/26, 4pm 흥현만 집사택), 3구역(7/19, 3:45pm 교회), 4구역(7/26, 3:45pm 교회)
- 중고등부 Roots 수련회: 7/27-7/30. 주제: Behold Your God. Illinois Wesleyan University, Bloomington, IL.
- 협력기도: 김영자(김택문), 이맹표, 이오덕, 남궁운자, 김형곤(김순자씨)
- 다음주 기도: 최의순 장로 / 금요일예배 기도: 최성에 권사
- 이번 주 봉헌위원: 최선심 권사, 다음주 봉헌위원: 최현희 집사
- 친교: 이번주- 이정애 권사/ 다음주- 한문선 권사
- 7월 뒷정리: 2구역

◀ 모임안내 ▶

- 금요일 찬양예배: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
- 토요일 새벽기도회: 매주 토요일 오전 6시
- Youtube QT 방송: 매주 수요일

◀ 교회를 섬기는 분들 ▶

담임 목사 박현수
E.M 목사 정영준(Jonny)
교사 Chris Choi, Jemimah Chae
시무장로 최의순 김태중
성가지휘 강수경
반주 Adam Kastler
찬양팀 최의순 최의설 강수경

◀ 후원 선교사 ▶

케냐 - 강충만
말라위 선교단 - 남성우
NOVO(NK) - 서예레미야
Pipeline Ministry - 심수영
REI - James Kang

*우리는 교인의 1%를 선교 보내는 1% 챌린지 교회입니다!